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8 상반기 제15호

발행 한국관상지원단
Tel 02-421-1968

편집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796, 지층 1호
E-mail koreacontout@dreamwiz.com www.centeringprayer.or.kr

특별한 선물

한국관상지원단 대표 윤행도 가롤로 신부

+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향심기도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 올립니다. 매일매일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어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지난해 시월에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향심기도 전국모임이 있었는데 실로 수년만의 모임이었는지라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도 했고 모처럼 뵙는 분들,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셔서 기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여러 분의 목사님들과 개신교회 신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국모임 때 대표신부 인사말을 통해서 대략 말씀드리긴 했지만 향심기도 가족들 중 전국모임에 오셨던 분들보다 오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창하거나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특히 최근에 겪었던 일들과 깨달음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제가 사제서품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안식년이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제 육신의 나이가 올해로 쉰여덟이니 저의 은퇴시기를 고려한다면(만 70세가 은퇴인데 저는 은퇴청원을 할 수 있는 65세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자 마지막이 될 안식년이었습니다.

1월 중순 경부터 안식년을 시작했고 3월초부터 5월말까지는 제주도에 있는 엠마오연수원에서 안식년 사제들을 위한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7월에는 열흘정도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니 총대리신부님으로부터 호출이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느낌으로 찾아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년을 중단하고 교구에서 운영 중인 거제 해성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고 마음이 정리되면 교구장 주교님을 찾아뵈라는 말씀에 이를 뒤에 교구장 주교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교님에게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안식년을 하면서 특히 제주도에서 연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제가 성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집전한 성사를 살아야 하며 신자도 성사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받은 은총을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본당으로 보내주십사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교구장 주교님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곧 새 학기가 시작되니 누군가는 가야한다며 저더러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제 서품이후 18년 동안 본당신부 소임은 단 한번뿐이었고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공소사목과 사회복지 등 이른바 특수사목을 했었고 그 중 2010년부터 16년까지 7년을 교구청 관리국장 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그동안 제대로 된 휴가조차 가지 않

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다시 관리행정 소임을 맡으라고 하시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교행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으로 시작한 안식년을 중단해야 했고, 반드시 사제를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하기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에서는 무엇인가 잘못 먹어 심한 체증이 걸린 것처럼 답답함과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마치 뜨뜻한 아랫목에서 부글부글 개어 오르기 시작하는 청국장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님의 명을 받고 부임하기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까지 해왔던 일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 TV만 본 적도 있었습니다(태어나고 나서 처음 해 본 경험이었습니다). 소임지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막상 소임지에 와서 보니 꼭 가지고 와야 할 짐도 가져오지 않았고 어디에다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져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사제서품이후 제게 주어진 소임 중 처음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소임이었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임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니 몸이라고 성할 리가 없겠지요. 9월1일부로 부임을 하고 열흘쯤 지날 무렵 지인의 집에 식사초대(점심)를 받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있으니 배에 찌르는 듯 한 통증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소화제를 먹고 좀 쉬었다가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져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

습니다. 낮에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가 싶어 일부러 구토를 하여 속에 든 것들을 좀 토해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웠을 무렵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학교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평소 같으면 2-3분이면 족했을 것을 통증 때문에 가다가 서기를 반복하다보니 10분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검사와 CT촬영 등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나온 진단결과는 장(소장)폐쇄였습니다. 소장이 막혀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니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당직의사의 말씀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며 창원에 있는 파티마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더니 허락해 주시더군요.

새벽 한 시가 좀 지날 무렵 위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빼내기 위한 호스를 코에 꽂은 채 구급차에 실려 창원파티마병원으로 갔습니다. 날이 밝아 담당 의사가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복부 수술경력도 없는 사람이 소장이 막히는 것은 당신도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일단 약물로 치료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틀이 지날 때쯤 다행히 가스(방귀)가 나왔고 몇 시간 뒤에는 변도 보게 되었습니다. 장폐쇄 증상은 좋아졌는데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오기 며칠 전부터 시작된 양쪽 팔꿈치 통증은 '엘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얹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나흘 만에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위염, 위궤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기 시작해야 했고 '엘보'치료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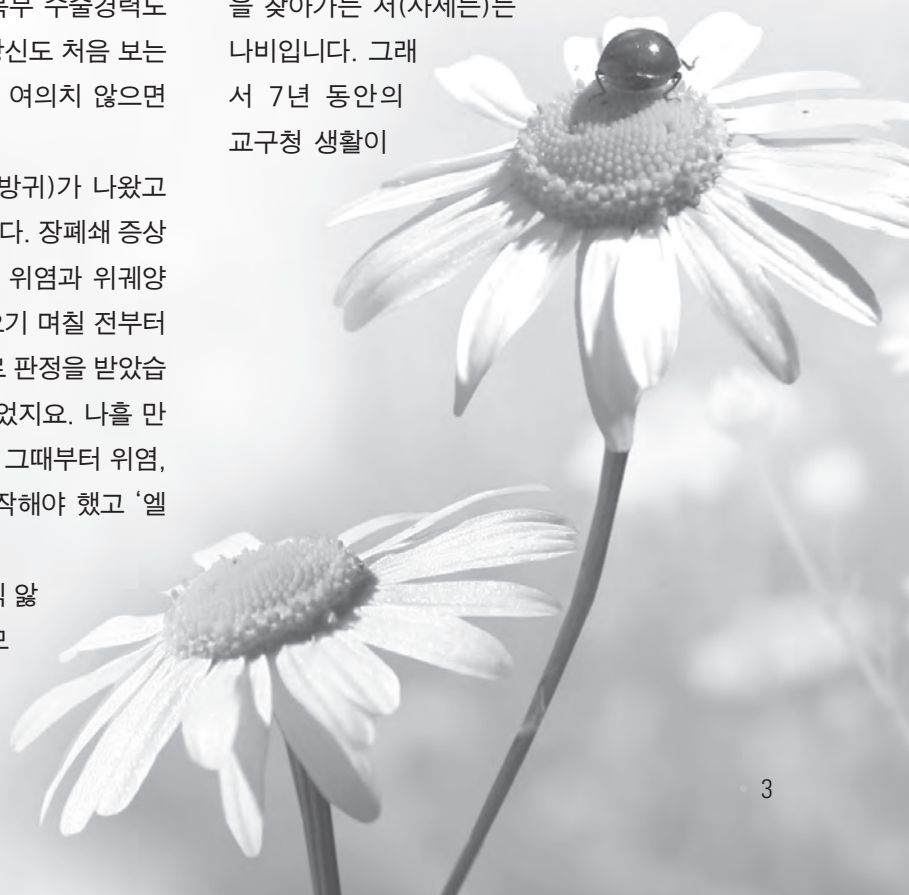
그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며칠씩 앓아눕기도 했고 2015년에는 원인을 고열로 열흘간 입원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해

왔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곳에 문제가 일어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여름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제 육신과 영혼에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치고 나니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예수님에게 불림 받은 자, 특별히 사제나 수도자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한 후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종이기에,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소임이 주어지든지 거부하거나 불평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나 칭찬 또한 바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나비입니다. 제(사제)가 가는 곳(소임지)은 그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마련하신 꽃자리이기에 꽃을 찾아가는 저(사제)는 나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교구청 생활이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허락된 안식년 또한 꽃자리입니다. 단순히 소임을 받지 않고 쉬기에 꽃자리가 아니라 안식년을 마친 후 새롭게 주어질 소임을 잘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러합니다. 제가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맡게 될 모든 소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지난해 초 제가 교구청을 떠나면서 주교님과 동료신부님들, 교구청 직원분들에게 드렸던 인사말의 일부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신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사제로 살아 온 것이 누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저를 부르시어 당신의 사제로 삼아주셨기에, 쓸모 없는 종이였기에 그저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안식년이 중단되었다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가는 곳은 모두가 꽃자리이기에 설령 지금처럼 사무적인 일, 생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나태해졌고 안일해 졌는지 깨우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소신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나면 많은 피해를 남기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계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것처럼 이번 소임으로 인해 제 육신과 영혼에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에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제가 이곳에 옴으로 인해 그동안 학교담당 사제(교목)가 없어 학생미사 때마다 지역본당의 보좌신부님들께 신세를 져야했던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와 향심기도를 하시는 인근본당 신자님들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들으신 이청준 신부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2017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후임행정실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내년에도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전혀 모르는 탓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하는 행정실장 소임에, 교구로부터 받은 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교목역할까지.

언젠가 수녀님에게 떠밀려 저와 면담하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왜 내가 신부님을 만나야 해요?”라며 마지못해 저를 만났었는데 면담이 끝나고 수녀님에게 가서는 “정말 아버지였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왜 사제를 영어로 Father라 하는지, 아버지의 의미, 사제의 존재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섭리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나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도, 달갑지도 않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선물임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쓸모없는 종으로써 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받 아들입니다.

관상지원단의 비전(개정본)

미국관상지원단 소식지 34권 • 2호 • 2017년 6월
토머스 키팅 신부(이청준 신부 역)

지난 해 우리 리더십 팀은, ‘관상지원단의 섬기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다루게 되었는데, 2008년부터 적용되었던 신학적 원칙과 행정적 원칙을 다듬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원칙들 중에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관상지원단에 일어난 유익한 변화들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기조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과 표현법을 제시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기존 원칙에 해설을 덧붙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은 저는 신학적·행정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행정적 원칙’은 ‘관상지원단 봉사지침’으로 바꾸어 부르기를 요청합니다. 각 항목마다 발전 중에 있는 우리 조직의 현 상황을 반영한 해설들을 덧붙였습니다. 이들 새 원칙과 지침들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부가 설명을 새로 덧붙여도 됩니다. 세계 곳곳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기에, 우리의 비전을 몇 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라, 각 신학적 원칙과 지침 하단에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원칙과 지침 둘 다 ‘관상지원단의 비전’에 속하며 2017년 9월의 관상지원단 연차 총회 때 발표하여 평가와 논평을 거칠 것입니다.

관상지원단의 비전

토머스 키팅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우리는 항상기도 수련을 통해,

자신과 이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과정을 수락한다.



신학적 원칙 및 해설

1. 관상지원단은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추구하는 개인들과 공동체로 구성된 조직망이며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의 쇄신에 기여한다.

향심기도와 관상지원단의 근본 목적은 인류가족의 의식 속에 하느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관상지원단은 향심기도에 대한 기초적 가르침을 주는 한편 관상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지원하는 추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2. 관상지원단에 속한다는 최우선적 표현은 향심기도 수련에 투신하는 것이다.

공동체 소속의 핵심 사항은 매일의 향심기도 수련이다.

3. 향심기도의 신학적 토대는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현존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지속적 자기증여다. 하느님 말씀과 만물의 근원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개별적 인간과 개별적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성령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친밀한 관계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4.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 향심기도의 핵심이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우리의 변화과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변화과정으로 인해 우리는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5. 내주하시는 신적 현존은 우리의 타고난 선성을 확증한다. 이는 삼위일체 신학으로 총망하게 표현된다.

신적 내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무에서부터,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이 믿음은 생명의 선물에서 나오는 우리의 근본적 선성을 확증한다. 둘째, 그것은 의식의 원시적 단계에서 솟아나는 인간 본성의 상처를 치유한다. 우리의 본능적 욕구들은 추상적 사고, 자유로운 선택, 이웃에 대한 동정심을 장착한 이성적 의식(아직 진화중이다)에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영적 진보는 친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적 변화의 치유 과정이다. 친밀성은, 기도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확립된다.

6. 신적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치유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점점 친밀해짐을 체험하며, 이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실제적 이웃 사랑도 체험한다.

변화의 치유과정에는 어린 시절의 본능적 욕구와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은 ‘거짓 자아와 이기적 동기’를 정화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화란 의식적·무의식적 거짓자아의 동기의 지배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정화는 신적 사랑이 주입됨으로써 일어나는데, 이 사랑이야말로 치유과정의 본질이다. 정화는 사랑으로 가는 내적 자유로 인도한다. 이는 진정한 자기 지식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활성화를 통해 일어난다.

7. 향심기도의 개념적 배경은 관상의 침묵과 고요가 성장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향심기도의 개념적 배경을 숙지하기 위해, 초보자들에게 ‘영적 여정’ 비디오 관람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사랑에로의 초대』, 『하느님과의 친밀』을 공부하도록 권한다. 이 비디오와 서적에는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과 현대 심리학 및 타종교의 가르침이 버무려져 있다. 향심기도는 14세기 영국의 익명의 저자가 쓴 『무지의 구름』에서 도입되었다.

8. 렉시오 디비나 수련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관상으로 나아갈 것을 권한다. 매일의 향심기도 수련이 이를 촉진한다.

렉시오 디비나란 성경에 대한 숙고를 일컫는 전통적 용어다. 기능 훈련(읽기, 숙고, 하느님 안에서 쉬므로 이끄는 응답)을 통한 렉시오 디비나 수련은 향심기도 중에 의도적인 생각을 놓아 버리는 훈련과 균형을 이룬다.

9. 우리는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과 ‘관상적 섬김’이 그리스도교 일치에 공통 기반임을 믿는다.

그리스도교 관상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주요 신비가들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관상 전통은 세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공유하는 그리스도교 각 교파 사람들을 일치시켜준다.

10. 우리가 종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향심기도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결속된다.

향심기도는 종파적 차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 체험을 통해 우리를 침묵 중에 결속시킨다.

11. 우리는 타종교와 거룩한 전통들의 관상적 차원과 연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한다.

공통으로 하느님을 찾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는 타 종교와 거룩한 전통 및 그에 투신하는 이들을 예우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일치운동과 종교간 대화에 참여하며 사회 정의, 생태 문제, 관상적 분야에서 협력한다.

12.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라는 의식과 전 인류에 대한 연민이 강화된다.

향심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 특히 가난한 이들과 우리 시대의 소모적 문화에서 착취당하거나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다.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향심기도를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향심기도를 통해 전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 신적 현존에 응답하게 된다.

13.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섬김과 최고의 사랑과 일치 정신으로 리더십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리더는 인간 조건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한다. 곧 섬기는 것,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을 넘어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결점, 한계, 때로는 터무니없는 행동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과 모든 이를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치에 이르는 길이다.

14. 관상지원단이 이룬 업적은 성령의 선물이다.

은총에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고 함께 속량한다. 또한 신적 변화는 성령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모든 유익의 원천이다.



관상지원단의 봉사 지침과 해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1코린 12,4-6)

1. 관상지원단은 향심기도 수련을 심화하고 비전을 넓히며,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로서 관상지원단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곧 상호협동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 존적이고 역동적이다. 관상지원단은 위계 구조 없이 소임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향심기도와 관상적 비전을 되도록 광범위하게 공유하고자 한다.

2. 향심기도의 온전한 가르침은 향심기도 리플렛에 실린 ‘네 가지 지침과 개념적 배경’에 들어 있다.

관상지원단에서 제공하는 다른 수련들은 향심기도의 열매를 일상생활로 가져가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향심기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책, 비디오, 아티클 같은 자료들도 향심기도의 본질적 가르침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심기도의 지속적 수련에 큰 도움이 된다.

3. 우리는 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적 이끌림에 호소함으로써 향심기도를 전파한다.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주의 깊은 경청의 태도를 활동 속에 가져간다. 우리는 향심기도법과 그 개념적 배경을 사목적으로 제공하지만, 엄격한 방침이나 경직된 규율 혹은 개종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4. 리더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개 자원봉사 형태로 일한다. 필요시 직원을 고용한다.

관상지원단에 봉사하는 이들은 매우 관대한 마음으로 보수도 없이 수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명과 특별한 자질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봉사한다. 모든 봉사자는, 개인이든 기도회든 지부든, 공동체 전체의 필요와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노력한다.

5. 관상지원단의 모든 봉사자는 개인과 가족과 직업상 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봉사한다.

리더를 맡은 이들은 봉사에 임하되, 개인과 가족과 직업상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 관상지원단은 빚을 지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향심기도 선물을 공유하는 데 모든 재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위해서다.

관상지원단은 빚을 지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빚이나 부동산은 공동체의 영적 복리와 변화하는 욕구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바치려는 리더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7. 우리는 기도를 통한 식별력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결정을 내린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도와 식별을 통해 결정에 이르되,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의에서 모든 회원이 발언권을 가진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룹의 자문을 얻은 뒤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답보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일단 결정이 나면, 모두가 일치의 정신으로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일상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이들이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바를 행한다.

8. 우리는 소속된 교회 당국에 협력하지만, 종교 기관이나 평신도 기관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관상지원단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향심기도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공동의 관상전통을 더욱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9. 모든 이에게 열려 있기 위해서, 관상지원단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특정 주장을 지지하지도 않고 공적 논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우리 개개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특정 주장을 지지하거나 공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한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관상지원단에서 배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채 모든 이에게 향심기도를 보급하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10. 우리는 스노메스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한다.

콜로라도 스노메스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은 우리의 영적 고향이며 피정과 쇄신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영적 여정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심기도의 진행

미국관상지원단 소식지 35권 • 1호 • 2017년 12월
토머스 키팅 신부(이청준 신부 역)

향심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동의를 통해 우리는 관상에 이르고 또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동의가 매일의 수련을 통해 어떤 식으로 심화되는지 다음의 특징들이 보여준다.

1. **침묵** : 우리 안의 하느님 현존에 동의할 때 침묵이 생겨난다. 외적 침묵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고 우리를 내적 침묵으로 이끈다.
2. **고독** : 내적 침묵에서 고독이 나온다. 곧 자신과의 끝없는 대화를 무시하면서 하느님 현존 체험 안에서 쉰다.
3. **연대** : 연대란 자신이 온 인류 및 만물과 하나라는 인식이 커져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적 기도 시간 뿐 아니라 소소한 일상 안에서도, 성령의 지속적인 영감에 민감해진다.
4. **섬김** : 연대감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섬김이다. 이 섬김이란,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내적 부르심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시며 섬기신다는 깨달음에 근거한다. 말하자면, 우리 안의 하느님께서 이웃 안의 하느님을 섬기신다.
5. **침잠** : 예수님께서 ‘숨어서 드리는 기도’(마태 6,6)라고 하신 그것이 곧 침잠이다. 이는 자신을 사

로잡고 있는 생각과 욕망이나 이성적 개념을 넘어서는 하느님 현존 체험을 말한다. 우리는 내적 침묵에서 고독으로, 그리고 고독에서 침잠으로 들어간다. 관상 기도가 머무는 곳이 침잠이다. 십자가 성 요한에 따르면, 관상은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관상을 순전한 선물이라 여긴다. 사실상 관상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선물을 지니고 있다. 관상은 인간 의식의 본성적 상태임을 많은 신비가들이 확인시켜 준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은 그 상징 가운데 하나다.

6. **단순성** : 단순성은 복잡한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관상과 활동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엄청난 활동과 끝없는 분심과 큰 근심 중에도, 신적 현존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 현존이 우리를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한다.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활동에 영감을 주시는 곳이다. 단순성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궁극적으로 통합·통일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산봉우리와 같다. 산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면서 그 봉우리를 떠받치고 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본성에 따라 작용한다. 단순성이란 인간 본성의 엄청난 복합성에서 생겨난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일치로 나아갈 때 나오는 것이 단순성이다.

이러한 단순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관상을 통한 내적 침묵의 양성과 단순한 생활양식이다. 관상 기도와 활동은 단순성의 영향을 받아 점차 우리를 의식적·무의식적 집착에서 해방시킨다.(이 집착이 내적 평화를 잃게 만든다) 단순성은 격한 감정들을 누그러뜨린다. 격한 감정은 우리를 갈가리 찢어놓고, 우리가 여태 보듬고 있던 삶 안에, 그리고 하느님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와르르 무너뜨린다.

관상과 활동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둘이 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다. 둘은 구별되지만 하느님께서는 관상 안에서나 활동 안에서나 똑같이 계신다. 둘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성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과 하느님 체험에 바탕을 둔다. 단순성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는,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키고 해야 할 일은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7. 완전한 승복 : 완전한 승복이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신적 결합'에서 '일치'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것은 의식의 영속적 상태다)이라 부르신 것의 시작을 알린다. 향심기도 수련을 통한 자기 승복은 신적 결합으로 나아가는 전통적 방법이다. 자기 승복과 신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작용이며,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큰 기쁨에서 나온다.

궁극적 실재 the Ultimate Reality가 '드러나지 않

시는 분' Unmanifest이라 함은 철저한 자기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요한복음 말씀(요한 17,20-22 참조)으로 초대한다.

고통은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다. 여기에는 치료법이 없다. 신적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피조물이 선택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피조물은 완전한 행복을 향한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이 영원한 현존보다 더 실제적이고 겸손한 현존은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영원한 현존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현존은 그 어떤 것도 획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그 현존이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커지는 내적 자유 안에서 당신과 같아지는 것이다.(내적 자유가 일치와 함께 간다)

은총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체험할 때, 하느님, 영적 여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 각 단계 사이에는 기쁨의 평원이 있기도 한다. 말하자면 많은 축복이 내리고 엄청난 신체적·정신적·영적 효과들이 일어난다. 어둔 밤이란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데, 가장 큰 어둠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영적 고통이다. 즉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다룰 수 없으나,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불굴의 신뢰로 그것들을 견디어내는 것이다.

내가 맛보는 기쁨, 내가 누리는 희망!

김지호 목사

“관상기도는 하느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세계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모험이다. 그것은 무한 (the Infinite)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다. 우리의 개인적이며 자기 스스로 만든 세계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불가능한 일들이 매일의 평범한 경험이 된다. 그러나 기도가 드러내는 세계는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토마스 키팅, 엄무광 역,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개정판), 가톨릭출판사, 27쪽. 약간 수정함)



기도방식에 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추세워 앉는다. 몸이 팽팽하게 당긴다. 몸의 긴장을 푼다. 팽팽함과 이완 사이에 균형을 잡는다. 손을 가볍게 무릎에 올려놓고 호흡을 고른다. 깊은 숨을 여러 번 쉬며 산만했던 마음을 모은다. 윌리엄 메닝거 신부님이 일러준 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이 30분을 보내려는 원의를 은총으로 내려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주님’을 거룩한 단어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성령님에게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이 기도로 아버지께 저의 사랑을 바치려고 합니다.”(『사랑의 탐색』, 바오로 딸, 43쪽)

천천히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거룩한 단어가 선명하게 떠오르다 깊고 어두운 곳으로 사라진다... 사이사이 생각들이 올라온다. 이때는 떠도는 생각들마저 선명하다.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떠올린다. (어떤 날은, 거룩한 단어가 서서히 깊고 어두운 곳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생각에 생각이 끝없이 밀려든다.) 이곳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곳이다.

생각조차 어둡한 곳으로 사라져 시간까지 사라지든, 생각들이 밀려와 선명해진 생각들이 끈질기게 달라붙든, 내가 할 일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것뿐이다. (어떤 때는 이마저도 힘든 날이 있다.) 이 “가게 놓아둬” (letting go)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향심기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키팅 신부님이 말씀하신 “내 스스로 만든 세계가 끝이 나고, 하느님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세계”를 더 깊이 맛보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기도가 드러내는 세계를 경험하기를 희망한다. 이 기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의미임이 기쁘다.

다음은 몇 달 전부터 향심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힘들어 하던 어떤 자매의 감동스런 고백이다. 이런 도반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행복하다.

향심기도! /나를 열어드린다.

향심기도는 트릭이 아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도 아니며/

내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기술도 아니다/ 향심기도, 그 자체가 감사이며/ 참나를 만나는 기도이다.

내 안의 모든 것을 열어/ 나를 내려놓는 승복/ 그 자체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신뢰/ 그 안에서.../ 내 삶의 사랑/ 내 삶의 신뢰/ ... 그냥... 사랑이다. 감사이다./

향심기도 그 자체가 회복이다.

(2018년 어느 날 새벽에 만난 향심기도)



한국에서의 사랑과 축복의 만남들!

엄정숙 헬레나

제가 2017년도 한국방문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기도는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였고 두달간의 방문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드린 기도는 “주님, 당신의 보살핌이 이렇게 극진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하심과 활동하심에 승복하는 기도”, 향심기도 수련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랑과 축복의 만남이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10일간의 심화 피정과 전국모임에 참석했던 개인의 솔직한 느낌들과 감사의 마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동생에게서 들었던 말 중에 “언니, 한국은 안 그래” 가 새삼 떠오르는군요.혹시라도 잘못 표현되는 말들은 미리 용서를 청합니다:

1)씨튼 영성의 집에서의 10일 피정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어요.

침묵을 깨뜨리는 참석자도 없었고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향심기도에 필수적인 개념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키팅 신부님께서 강조하시는 “수련이 향심기도의 전부다”라는 말씀을 교수님들의 가르침에서 전해움을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키팅 신부님 강의가 너무 어렵다고 들 하는데 키팅신부님이 계신 곳인 Snowmass 10일 피정과 다른 게 없음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한국관상지원단에서 헌신해오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어요.



피정 마지막 날 면담시간에 엄 선생님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어느 정도는 알기에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을 감사기도 중에 봉헌할 수 있었어요.

2)한국관상지원단 전국모임: 콜로라도, 스노우매스의 피정집을 연상시키는 마산가톨릭교육관은 많은 것들을 연상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목사님 한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국모임을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의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상적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의 현 위치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모임의 일정표부터, 오며가며 볼 수 있도록 복도에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다큐멘터리가 비디오로 설치되었고, 한국관상지원단 소식지들이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배열되었고, 번역된 책자들과 DVD, Tape 들,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시작된 첫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국제관상지원단의 지침과 안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전국모임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다고 믿어졌어요.

“한국관상지원단의 걸어온 길”을 짧은기간에 정리해서 보여주신 것도 놀라웠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자세히 더 정확하게 정리되리라는 믿음도 있고, 사무국장님의 섬세함과 재능으로 한국관상지원단이 체계화되리라는 희망과 벅찬 기대도 해 보았어요.

전국모임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으로 인상깊게 들었지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열림과 받아들이는 함께함을 맛보는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향심기도 피정에 참가하면 종교에 관계없이 오로지 침묵 안에서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서로가 확인하곤 해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 소중한 참숯향을 피워놓고 향심기도를 하고 있어요. 피어오르는 연기에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데 성실해야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하곤 합니다.

3)국제관상지원단과의 관계: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키팅신부님께 한국방문을 알려드렸고 신부님 답장에는 2002년도 한국방문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소식을 주셨더군요.

칼 아리고 신부님과는 12월초 대림절피정에서 만나 뵙고 한국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국제관상지원단에도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정보와 자료들을 알려주기를 부탁드렸지요.

4)한국방문 후에, 그리고 대림절피정 후에 나에게 하는 질문들은: 할머니 역할을 나의 관상적 봉사로 여기며 안주하는 현 위치에서 벗어나서 성실한 심부름꾼의 삶은?

나는 아직도 회개의 삶인가? 아니면 변형과정의 삶인가?

나는 아직도 십계명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복팔단의 삶인가?

나는 세례자요한의 세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2018년도의, 아니면 저의 여생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어내려 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엄 헬레나 드립니다



전국모임을 다녀와서

광주지부 김영재 알로이시오

한국관광지원단에서 전국모임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지부 향심기도회에서는 1년 전부터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참석자들의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버스 1대를 대절하고 1인당 회비 2만원씩 보조하며 간식비 포함하여 200여만 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34명의 회원이 참석하게 되어 아침 일찍 버스 1대로 광주를 출발하여 기도를 하고 중간에 준비한 찰밥으로 점심을 즐겁게 먹고 회관에 도착 하였습니다.

우리를 회관 입구에서 맞이해 준 관광지원단 김병연 요셉 사무국장, 대전간사 박봉석 세례자요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지만, 향심기도 회원이라는 것으로 가까운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 10여 분 참석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청준 신부님의 국제관광지원단 신학적 원칙 개정에 대한 설명, 김종순 실비아 수녀님의 영적여정, 엄 헬레나님의 국제관광지원단 소식 등등...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키팅 신부님 일생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쇠신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지부의 그룹 대화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지부마다 향심기도회 운영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모습에서 하느님 도우심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산교육관은 향심기도 회원들이 침묵하면서 하느님 현존을 관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성모상 앞에서 석양의 해지는 모습을 휴대폰 사진에 담으면서 우리들은 환호성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광주회원들은 성모상 앞에 모여 삼삼오오 사진촬영도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활짝 웃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모여 세계평화와 향심기도 발전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바쳤습니다.

향심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하심과 치유, 그리고 하느님 사랑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기에 마음 속 깊이 느끼게 되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에 다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전국모임을 통해 저희들 모두를 새롭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한 2박3일 전국모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국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생각하며,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 은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 중에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2017년 12월

2018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입문연수와 피정 · 후속연수와 심화피정 · 봉사자피정 · 집중피정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소개강의 (3회)	4월 9일(월) 4월 13일(금) 4월 16일(월)	오후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장미자 자매 김영재 형제	010-3632-0237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1일 소개강의 (5회)	2월23일(금) ~ 3월 23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천안) 목천 성당	박봉석 형제 김병연 형제	010-3909-6649	
1일 소개피정	4월 07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6월 25일(월)					
	10월 10일(수)					
향심기도 입문 후속연수 (3회)	6월 11일(월) 6월 15일(금) 6월 18일(월)	오후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장미자 자매 김영재 형제	010-3632-0237	향심기도 입문연수나 피정을 마친신 분들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 1박 2일 피정	3월 10일(토) 오전 10시 ~ 11일(일) 오후 3시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 221-1891~2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10월 27일(토) 오전 10시 ~ 28일(일) 오후 3시 * 주제: 하느님 안에서 쉼					향심기도 입문 연수나 피정을 마친신 분들
2박 3일 심화 피정	4월 09일(월) 오전 10시 ~ 11일(수) 오후 3시 *주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6월 22일(금) 오후 3시 ~ 24일(일) 오후 3시 *주제:향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12월 07일(금) 오전 10시 ~ 09일(일) 오후 3시 *주제: 중독과 하느님의 치료					
3박 4일 심화 피정	2월 20일(화) 오후 3시 ~ 23일(금) 오후 3시 *주제: 하느님과의 친밀					
* 3박 4일 봉사자 피정	8월 06일(월) 오후 3시 ~ 09일(목) 오후 3시				한국관상지원단 (02)421-1968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6월 08일(금) 오후 3시 ~ 10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윤행도 신부 장미자 자매	(02) 421-1968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 혹은 향심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
		10월 26일(금) 오후 3시 ~ 28일(일) 오후 3시					
2박 3일 심화 피정		7월 13일(금) ~ 15일(일) * 주제: 참자아의 회복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김경순 수녀	02)744-9825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4박 5일 심화피정		11월 26일(월) ~ 30일(금)					
향심기도 하루 위탁피정		언제든지, 오전 10시 ~ 오후4시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 *평화계곡 피정의 집에서는 개인,가족 소공동체, 본당 제단체의 향심기도 피정을 도와드립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수성심 시녀회) 조애우제니아, 이루시아수녀	(054)931-0022 010-5332-7587 010-9738-0216 *홈페이지www. peacevally.or.kr 주소: 경북성주군 초 전면소성길330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단체피정
1박 2일 소개피정		매월 둘째, 넷째 주일 토요일 15시~ 일요일 15시					입문 연수 및 피정을 마친 분들, 단체피정
부모와 함께하는 첫영성체 향심기도 1박2일 피정		매월 첫째주, 토요일 15시 ~ 일요일 15시					단체 문의
향심기도 신앙캠프		여름, 겨울 *1박 2일, 2박 3일 가능함.					초, 중, 고등학생 단체 문의
2박 3일 심화피정		3월 10일(토) ~ 12일(월)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단체피정 문의
		5월 19일(토) ~ 21일(월)					
		10월 06일(토) ~ 08일(월)					
		12월 07일(금) ~ 09일(일)					
3박4일 특별피정	부활	3월 29일(목) ~ 4월 01일(일)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성탄	12월 22일(토) ~ 25일(화)					
2박 3일 심화피정		7월 12일(목) 10시 ~ 14일(토) 10시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센터	이청준 신부	010-2002-1023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9박 10일 집중피정		9월 04일(화) 16시 ~ 13일(목) 1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광지원단 교수팀	(02)421-1968	3박 4일 이상 심화피정을 하신 분들

❖ 월 침묵피정 및 월 새신의 날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침묵피정		3월 20일, 4월 17일, 5월 22일 6월 19일, 7월 17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항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월 새신의 날	울산	2월 25일, 3월 18일, 4월 29일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5일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광주	1월 08일(월)	오전10시 - 오후 4시	(광주) 증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3632-0237	
		2월 05일(월)			남재희 신부		
		3월 05일(월)			정규완 신부		
		4월 02일(월)			왕영수 신부		
		5월 07일(월)			박석렬 신부		
		6월 04일(월)			정규완 신부		
		7월 02일(월)			이청준 신부		
		8월 06일(월)			박석렬 신부		
		9월 03일(월)			정규완 신부		
		10월 01일(월)			왕영수 신부		
		11월 05일(월)			친교 및 피정 (마산가톨릭교육관)		
		12월 03일(월)			정규완 신부		
	여수 순천 광양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순천 조례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4569-9360	
	대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대전 월평동 성당	박봉석 형제	010-3909-6649	
대구	2월 10일, 3월 10일, 4월 14일 5월 12일, 6월 09일, 7월 14일 8월 11일, 9월 08일, 10월 13일 11월 10일, 12월 08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15시		만촌 3동 성당	미정	010-7795-0639		



❖ 전국 소기도 모임 ❖

지역	장소	일시	봉사자	연락처
서울	송파동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 성북동 분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김문희 엘리사벳	010-8917-4523
	서강대학교젊은이 모임 <대학(원)생,청년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	퍼시 아저씨	010-2322-3929
	*(성공회)성세례요한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새길교회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만수 6동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성공회)인천계양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경기	(남양주)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부천) 성화의 집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선희 목사	010-8631-7228
	*(고양) 살림 교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녜스	010-6630-6649
	진잠 성당 - 효경방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3909-6649
	*(월모임) 월평동 성당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3909-6649
	궁동 성당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황경자 데레사	010-6888-0281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박정옥 소화데레사	010-8804-2160
	월평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송진희 미카엘라	010-6489-0600
청주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영옥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송절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녜스	043)733-2795
	미원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천경민 아가다	010-9408-9670
부산	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정예규 아녜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112호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당감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홍경애 골롬바	010-3742-4516
	남산 성당	①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정희남 소화데레사	010-3157-2423
		②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윤순옥 모니카	010-9880-5005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정미례 크리스티나	010-9222-8015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① 매주 일요일 오후1시 30분 ~오후 3시	왕영수 신부 박경희 마리아	010-5488-1239 010-8029-6329
		②월 모임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대구	황금동 성당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양기매 마리아	010-5521-2610
	만촌3동 성당		①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②매주 금요일 오전 미사후	신정희 켄마	010-3153-6633
경주	성동 성당 - 성당 2층		①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경남	(진주)하대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창녕)남지선교성당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선애 카타리나	010-4661-9738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홍진순 루시아	010-9552-7315
	거제	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경화 도미니카	010-7559-1283
		옥포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복순 아녜스	010-9689-0072
		장평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 성당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신효원 로사	010-5444-3098
광주	중흥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임정자프란치스카	010-9431-7640
			②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조연숙 리디아	010-9138-2615
			④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윤금 보리나	010-8230-0215
	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옥순 세실리아	010-3999-6331
	금호2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복희 데레사	010-6690-1097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국명자 글라라	010-8775-5108
	두암동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충현 루치오	011-666-6931
	옥과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강성자 도미니카	010-9883-2309
담양	창평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김계자 로사 신영애 안나	010-3633-0656 010-2619-5280
순천	조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해현 까리따스	010-4569-9360
여수	선원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영 엘리사벳	010-7655-3952
광양	광영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주미 세레나	010-6635-4342
곡성	곡성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임명옥 마리아	010-3689-1815
전주	솔내 성당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황인자 엘리사벳	010-4662-1188
제주	광양 성당		① 매월 첫 주, 셋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김은실 소화데레사	010-2002-1023
			② 월 피정의 날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노형성당		① 유아실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양지혜 아가다	010-3850-8285
			② 토마교리실- 매주금요일 저녁7시30분 미사후		
중국	(북경)한인공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문희 벨라렛다	번호 미기재함.

한국관상지원단 전국모임

2017년 10월 20-22일 향심기도 전국모임이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 종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이 넘는 향심기도 회원들과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항에 따라서 관상지원단의 비전에 관하여 지부별로 진술한 나눔을 가진 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의 향심기도 회원들께서 각 지부의 활동에 더욱 더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모임의 각 지부별 발표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 한가지만으로 뭔가를 이룰 수는 없지만
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 서울지부 ■

1. 서울지부의 장점 및 현황

서울지부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 2001년에 기도회가 형성된 후 천주교 1팀, 개신교 새길교회 4팀, 씨튼 영성센터 1팀, 성공회 1팀, 대학교 2팀, 서울대교구 향심기도회 등 다양한 기도회가 있다. 한국관상지원단에 속한 기도회 인원은 약 70여명 정도이다. 월 침묵피정은 씨튼 영성센터에서 월1회 20-30명, 서울대교구 향심기도회에서 월2회 120여명 참석한다.

2. 당면과제 및 우선사항

첫째,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본당 단위로 조직적으로 많은 이에게 향심기도를 보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도 수련자들이 적다. 서울대교구와 한국관상지원단과의 교류와 소통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둘째, 서울지부에는 강사피정이나 기도회봉사자 피정 수요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봉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계속 받지 않아서, 전담과정에서 자기방식의 개별적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기대

다양성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일치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전국모임이 3~4년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되면, 서울지

부의 일치와 비전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도회 월피정, 2박3일, 4박5일 피정 등 관상지원단의 프로그램이 서울지부에 필요하다. 또한 외부강사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교육이 펼쳐지기 바란다.

셋째, 여러 종파의 다양성 안에 관상지원단 교육프로그램들을 잘 융화시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향심기도 회원들의 적극적 피정 참여와 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향심기도 회원들의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요롭게 맺혀져 복음적 삶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인천지부 ■

만수6동 기도모임은 15년정도 되었고, 꾸준한 기도회원은 5-6명으로 인천이라는 넓은 발에 작은 일에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각자가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 대전지부 ■

1. 대전지부 현황

- 대전지부에서 지금까지 향심기도 소개피정을 받은 사람은 400명(대전 250명, 충남150명) 정도이다.

- 기도회 수는 5개본당(내동, 궁동, 도룡동, 월평동, 진잠)이다. 과거 8개 본당이었으나 봉사자들의 거주지 이동으로 3개 본당(복수동, 정림동, 성남동)은 중단되어졌다.

- 3개본당(내동, 궁동, 도룡동)의 기도회는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2개본당(월평동, 진잠)에서는 기도회가 중단되었다가 후에 다시 모임을 시작했다.
- 궁동, 도룡동은 월요일 저녁 7시, 내동, 월평동은 수요일 저녁미사 후, 진잠은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 기도모임을 한다.
- 기도회 3곳의 봉사자는 봉사자 교육을 이수한지 10년이 넘었고, 2곳의 봉사자는 아직 봉사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
- 1년에 2~3명 정도 9박10일 집중피정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2. 향후 계획

대전지부는 대전교구지역 전체를 포함하지만 현재 소기도 모임은 대전시내 본당에만 있다. 향후 기도봉사자를 양성하여 세종시 및 천안지역에 기도회를 형성할 예정이며, 젊은이들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 내 가톨릭학생회를 대상으로 향심기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3. 건의 사항

내년에는 기도회봉사자 피정(재교육포함)이 실시되면 좋겠다. 각 피정집에서 향심기도 소개피정 참석자 명단을 관상지원단 사무국에 전달하고, 사무국에서 각지부에 해당 피정자를 통보하여 지부간사들이 피정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청주지부 ■

1. 청주지부 현황

- 기도회 : 5개 본당(과거 7개 본당이었으나, 분평동과 복대동 2개 본당이 중단됨)
- 영운동 본당은 기도회가 생긴지 12년 되었고, 나머지 4곳은 11년 되었음.
- 영운동은 화요일 10시, 미원은 화요일 11시, 사직동은 화요일 14시, 송절동은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청산은 목요일 10시 미사 후에 기도 모임.
- 기도회봉사자 교육 이수한 사람은 3명, 2008년 교육받은 후 기도회 참여 중
- 1년에 1~2명씩 피정이나 10일 집중 피정에 꾸준히 참석함.

2. 향후 계획

현재 분평동 본당에서 기도회를 원하시는 한 분이 기도참석자가 없어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성당 기도회에 합류하거나, 분평동 성당에서 기도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8년에는 가능한 씨튼 영성의 집에서 소개피정을 받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대구지부 ■

1. 대구지부 현황

- 기도회 : 2개 본당(황금, 만촌3동)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에서 소개피정과 심화피정을 월 2회씩 실시하며, 청소년을 위한 향심기도도 실시함.

2. 당면과제 및 우선사항

- 지부에서 활동하는 인원 및 기도 모임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 기도회의 정비 및 지역적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임 꾸리기가 필요하다.
- '월 쇠신의 날'을 추진해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2. 향후 계획

- 예수성심시녀회의 앞산 피정집에서 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평화계곡 피정 때에 소그룹 기도회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녀님들께서 알려주시기로 했으며, 간사도 피정자들과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 마산지부 ■

1. 마산지부 현황

- 기도회 : 7개 본당(장승포, 옥포, 장평, 하대동, 사파, 남지, 거창)
- 기도회 연수는 장승포 13년, 옥포 12년, 장평 4년, 하대동 15년, 사파 14년, 남지 7년, 거창 5년

2. 당면과제 및 우선사항

- 두 본의 교수 신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월 쇠신의 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 계획

- 윤행도 신부는 거제도 장승포, 옥포, 장평 본당 기도회를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다.
- 이청준 신부는 진주와 창원지역 기도 모임을 활성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 부산 지부 ■

1. 부산지부 현황 및 장점

- 2000년부터 향심기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16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인접해 있는 마산지부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 향심기도를 통해 회원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본다.

- 회원들간에 우애가 두터워졌다.

2. 당면과제 및 우선사항

- 부산지부 내에서 향심기도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드물다.
- 본당이나 피정집에서 향심기도 연수 및 피정이 이루어진 후 피정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기를 바란다.

3. 향후 계획

부산지부 내에서 월 쉐신의 날을 정해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

■ 광주 지부 ■

1. 광주지부 현황 및 장점

- 1) 영적 여정의 과정이 나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① 소개연수와 후속강의가 2,3명만 되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② 13개의 기도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③ 월 쉐신 프로그램 실시(매월 첫째 주 월요일, 45명 상회하는 참여자)

내용 : 향심기도/렉시오 디비나/마음을 열고~관련 책자 통독/ 명화감상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피정 확대(이청준 신부님, 김종순 수녀님)
 - 2) 중흥성당에는 연중 모임을 할 수 있는 향심기도실이 있다.
 - 3) 향심기도에 투신하시는 신부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다.
 - 4) 연중 1회 회원들의 친교의 날을 가진다.
 - 5) 기도회와 개인, 간사와 회원들간에 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 (전화 및 sns 등등으로...)

2. 당면과제

- 1) 차세대를 위한 지도 강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봉사자 교육이 관상지원단 차원에서 요구된다.
- 2) 본당 차원의 소개 연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 3) 봉사지침 8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3. 미래를 위한 비전

우리는 절대 신비하신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과 전 존재를 열어드리기 위한 향심기도 여정에 공동체가 항구하게 깊이 있게 나아가길 희망한다.

■ 제주도 지역 ■

1. 제주도 지역의 현황 및 장점

2007년경 제주 성서사도직담당 서유경 수녀가 외부강사들을 초청하여 향심기도 연수와 피정을 실시하면서, 향심기도

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소박하지만 매주 향심기도모임이 진지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노형본당과 중문본당에서 사랑의씨튼수녀회 소속 본당 수녀님들과 김영태 신부님, 우직한 신부님의 지원으로 향심기도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 제주교구에서 조금씩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2012년 이후 제주에서 해마다 한두 차례 소규모 연수나 피정을 실시했다.

주간 기도 모임 : 2008년 이후 향심기도를 하던 분들이 2017년부터 광양본당에서 월요일 오후에 기도회를 갖는다. 광양본당의 박마리아 수녀, 이화봉 목사, 5~6여명의 자매들이 참석하며,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15시에 "월피정의 날"을 지낸다.

노형 본당(수요일 저녁반, 목요일 낮반)과 중문본당(토요일 낮반)에서는 김경순 수녀의 소개연수와 피정을 통해 주간 기도회가 형성되고, 기도회에 본당수녀님들께서 참석하신다.

2. 당면과제 및 우선사항

현재 세 본당(광양, 노형, 중문)의 기도회 간에 교류는 없다. 광양본당의 기도회원들 대부분은 10여 년 동안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형성하고 피정 참석을 통해 양성되어왔다. 반면에 노형본당과 중문본당은 최근에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지원에 의해 막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후에도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제주 지역에서 연수 및 피정이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제주 지역 전체의 연대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기대

제주 교구의 향심기도 모임은 아주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다만 몇 명이 모여 향심기도를 한다 해도, 관상적 차원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관상생활에 투신하며 관상지원단과의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각 지부 및 지역별 소식

■ 한국관상지원단 ■

관상지원단 사무국이 서울 문정동에서 논산 씨튼 영성의 집으로 이사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7.06), 또한 전국모임(2017.10.20~22)이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산지부와 광주지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개역할을 수 행하는 두 분의 간사 변동을 알립니다.

부산지부 전임간사 차순희 비아 자매가 사임하고 (2017.10.21일), 신임간사로 류건희 아네스 자매가 추인되었으며, 광주지부는 김영재 알로이시오 형제가 사임하고 (2017.12.10일), 장미자 데레사 자매가 신임간사로 추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관상지원단의 한국담당 간사로 엄정숙 헬레나 자매(故 엄무광 형제 부인)와 김병연 요셉 형제(現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장) 두 분이 새로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임 간사를 맡으셨던 최승례 수녀와 김동한 형제, 김영재 형제, 차순희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

2017년 서울지부 씨튼 영성센터에서 정기적인 소개피정과 후속프로그램, 월 침묵피정이 연중 진행되었고 씨튼 수녀님들의 소개강의로 다수의 새로운 향심회원들이 늘어나고, 월 침묵피정으로 수련을 다지고 있습니다.

연말 두달에 걸쳐 월 침묵피정때 서울대교구 향심기도 전담이신 김귀웅 토마 신부님께서 특강과 더불어 미사주례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지역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www.hyangsim.com)를 참고하십시오.

■ 인천 ■

향심기도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인천지역 간사(010-4780-7867)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모임에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 ■

진잠성당에서 2017년 9/12~11/21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입문피정 및 후속강의를 마치고, 소기도 모임을 진잠성당 효경방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봉사자 박봉석 세례자요한010-3909-6649)에 기도모임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계획은 천안 목천성당에서 2018년 2월 23일(금) ~ 3월 23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소개피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개피정 후에 천안 목천성당에도 소기도 모임을 하고자합니다.

대전지부 월모임은 대전 월평동 성당에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가질 계획입니다.

대전지부 소기도모임은 2017년 상반기 소식지에 게재된 4

곳에 진잠성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청주 ■

2017년 9박 10일 집중 피정 2명 참석하였고, 현재 분평동 성당에서 소기도 모임을 원하시는 한분이 기도 참석자가 없어 지속할 수 없어, 추가모임 참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성당 소모임으로 합류하거나, 해당 성당에서 소기도 모임이 하루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가능한 씨튼 영성의 집 소개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부산 ■

2017년 이기대 성당에서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주관으로 향심기도 입문연수가(강사 : 이청준 신부) 10월 30~31일, 11월 6~7일에 4일간 주야로 각각 4차례씩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도 이기대성당에서 3월 12일과 19일에 후속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의 회원들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행하는 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마산 ■

2017년 12월 11일 진주 상평성당에서 1일 피정(강사: 이청준 신부)을 실시했습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향심기도 입문피정과 심화피정이 실시되었고, 2018년도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 울산 ■

- 울산지역 봉사자는 박경희 마리아(010-8029-6329)입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루 쉼인피정을 통하여 많은 향심기도 회원들의 영적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향심기도와 거룩한 독서를 접목시켜 기도생활과 말씀을 조화시켜 실제 삶으로 열매 맺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향심기도와 거룩한 독서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봉사자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회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년 4회 정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 정관 성당의 선교분과위원 10명이 성주 평화의 계곡 피정의 집에서 2017년에 소개피정, 심화과정피정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탄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울산지역의 본당공동체가 25군데 있으나 기도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도회가 탄생되도록 소개피정과 심화과정의 피정을 2차례 시도할 예정입니다.

■ 대구 ■

대구지역은 연2회 꾸준히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

는 피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모임과 주간모임이 신설 되었으며, 꾸준히 기도에 투신하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광주 ■

- 매월 1회 책신의 날 실시- 40여명 회원이 참석하여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통독을 하고 강의와 미사를 함.
- 소개연수와 후속프로그램연수 1회
- 1일 피정 성령의 은사와 열매(강사: 이청준 신부)
- 6월 정규완 신부님 금경축 행사 실시
- 10월 전국모임 34명 참석
- 품양동성당 향심기도 입문연수 2회 -김종순 수녀

• 교구장님께 3년간의 활동보고

■ 제주도 ■

- * 제주시 노형동 성당
 - 2017년 3월 4주-8회 사순 특강 : 강사 김경순 수녀 <향심 기도 입문연수>
 - 2017년 12월 1주- 2회 대림 특강 : 강사 이청준 신부 <향심기도 입문연수>
- * 서귀포시 중문 성당_ 2017년 3월 4주-4회 사순 특강 : 강사 김경순 수녀님 <향심기도 입문연수>
- * 노형동 성당과 중문 성당의 사순특강 마무리로 <향심기도 심화피정> 진행 : 김경순수녀와 노형동 본당 주관 <2017년 6월9일-11일 이시돌피정센터>

향심 회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2018년에 관상지원단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2박3일 향심기도 소개 및 심화피정(6월 8~10일// 10월 26~28일), 3박4일 기도회 봉사자피정(8월 6일~9일), 9박10일 집중피정(9월 4일~13일) 일정을 공지 합니다. 피정을 하실 분들은 한국관상지원단(전화: 02-421-1968)으로 신청바랍니다.

한국관상지원단 신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번호: 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796, 지층 1호(전화: 02-421-1968)

| 지역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 | | | |
|-----------------|---------------|-------------------|---------------|
| •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서울지역 한명숙 카타리나 | 010-8553-2374 |
| • 인천지역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대전지역 박봉석 세례자 요한 | 010-3909-6649 |
| • 청주지역 연인래 아가다 | 010-9408-9670 | • 마산지역 황혜순 올리아나 | 010-9667-8944 |
| • 부산지역 류건희 아녜스 | 010-9325-0006 | • 대구지역 최해자 세라피나 | 010-7795-0639 |
| • 광주지역 장미자 데레사 | 010-3632-0237 | | |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기로 투신하는 개인과 향심기도 그룹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는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